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

전북도, 다문화주간 기념 다양한 문화이해 위한 행사·인식개선 활동 펼쳐

전라북도가 올해로 12주년이 되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문화주간을 맞아 다양한 문화이해를 위한 행사와 인식개선 활동 등을 펼친다.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19조)'에 의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세계인의 날부터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제정되었으며 전라북도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19조)에 의해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도민과 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다.

전북도는 다문화주간이 있는 5월에 도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문화 사진전과 백일장, 다문화 인형극 공연, 다문화 이해교육 등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첫 번째 행사로 도청 1층에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 다문화 사진전과 다문화 백일장 작품을 전시한다. 다문화 사진전은 '이웃들'이란 주

제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웃들과 함께한 이웃사랑이 담긴 다문화가족 출품작 42점이 선보인다.

다문화 백일장은 '한가족', '함께해요', '다 같이 놀자' 등 8개의 주제로 쓴 삼·사·오행시로 44개의 출품작을 선보였다.

임주군 부정림씨는 '지구촌'이란 주제로 전북 대표적 관광지인 지리산과 결혼이민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하여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4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호랑이의 친구가 된 돌쇠' 인형극 공연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연계해 2,580여명을 대상으로 24회간 실시한다.

오는 5월31일 제12회 다문화어울림축제가 개최되는 부안예술회관에서 도민을 초청하여 인형극을 공연하여 다문화이해를 통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84개 기관 및 단체를 찾아가 9,247여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일본, 러시아 등 11개국에 대한 나라별 문화이해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어린이 시절부터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하는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이제는 '다문화가 소외계층으로서 온정과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보통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차별을 버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문화교육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지역의 교육과 진로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사업, 다문화수용성 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문화소식지 사업 등 24여개의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와 메리 왕세자비를 접견하고 있다.

文 대통령,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 "양국민 마음 더 가까워지길"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방문... 지난해 짧은 만남 후 7개월 만 재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 내외를 접견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지난해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뒤 1년3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1959년 수교한 양국은 201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녹색성장동맹' 관계 구축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공식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과 덴마크 양국 수교 60주년과 상호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경제, 문화사절단을 이끌고 방한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특히 "메리 왕세자비께서는 한국문화의 해 덴마크 측을 맡아 아주 열

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번 상호 문화의 해를 통해서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더 가까워져 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덴마크가 주최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당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왕세자님과 아주 짧게 인사만 나눠 아쉬웠는데 7개월 만에 서울에서 왕세자님 내외분을 재회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왕세자님 내외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극진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청와대를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9번째 방한"이라며 "보통 한국에 방문할 때는 IOC 멤버로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

단과 함께 공식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 사절단에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45개 이상의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어 "이번 방문에 있어서는 양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며 "P4G 이니셔티브의 창립국가로 덴마크와 한국이 다시금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 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올해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배워갈 기회를 갖고 또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 선정 쾌거

전북도는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6억원을 지원받아 4개 시·군(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의 지방도에 교통안전시설 집중투자를 통해 지역주민의 보행권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자체 특성과 재난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발굴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4

월에 최종 심사를 거쳐 전국 2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전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설정한 특정구역으로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정범위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마을 시작 지점 전방 500m 부터 마을이 끝나는 500m 사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연구원에서 전국 대비 전라북도의 지방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전라북도도 정책 제안을 통해 연구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지 4개시·군 지방도를 선정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국 최초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지방비 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감소 예방 사업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활동 지원... 유희자원의 효과적 이용 도모

전북도는 2019년도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2019년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를 6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은 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선 7

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공유모델 및 공유문화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유경제 시범마을 선정 심사는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위원(8명)을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검

토, 현장실사 통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득점 순위로 최종 선정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및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 특화성, 사회계획 및 사업비 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 재원의 자부담 비율 등을 평가한다. /김진성 기자

"참여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잼버리대회 최대한 협력"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세부 협조 내용 검토 주문

2023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2023세계잼버리대회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행사인 만큼 전북도와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잼버리대회의 내용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면서, "학생

을 지도하는 것을 교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내 대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방식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각종 설문조사에 근거한 글들을 경계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설문조사는 조사기관, 조사수행기관, 조사목적에 따라 설문 항목과 설문양식이 달라진다"며, "각종 조사는 형식을 빌려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무상황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